

더 많은 것 못 주고 떠나와 미안해요

반갑다연우아 · 전국병원불자연합회 라오스 해외의료봉사
라오스=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꼬끼오~”
요란한 닭 울음소리가 마을을 깨우기 시작했다. 새벽안개와 흙먼지들이 뒤엉킨 뿌연 거리. 그 속으로 강렬한 햇빛이 파고들자 마을의 형체가 서서히 드러났다. 안개가 채 걷히지 않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거리는 분주했다.

지지 않았다. 반세기 동안 프랑스 식민지로 살았던 라오스는 전체 면적의 70%가 산악 지대이며 정글로 둘러싸여 있어 험한 산지와 고원이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조금이라도 날리는 먼지를 줄이기 위해 거리에 물을 뿌리는 사람들, 아이를 안고 밥을 짓는 아낙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가게를 정리하는 상인, 그 길을 종종걸음으로 등교하는 학생들까지, 거리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유렵과 동양 문화가 만나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라오스는 최근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휴양의 나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라오스는 아직까지 주요 도시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1950~1960년대의 모습과 흡사하다.

남마다좋은날(이사장 김의정)의 반갑다연우아(단장 구자선)와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류재환)는 10월 29일~11월 2일 라오스 파쌍마을로 해외의료봉사를 떠났다. 이번 해외의료봉사는 반갑다연우아가 2011년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마련된 행사이다.

반갑다연우아 이승복 팀장은 “불교계에서는 반갑다연우아가 처음으로 라오스 해외의료봉사를 떠나게 됐다. 무엇보다 전 세계 해외봉사단 중 최초로 파쌍마을을 방문해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라오스는 중국과 미얀마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둘러싸인 인도차이나반도 내륙 국가로 국민의 90%가 불자이다. 라오스에서는 아직까지도 아침마다 스님들의 ‘탁발식’이 이뤄지며, 국민들 모두가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있다.

파쌍마을에 들어서며
반갑다연우아 의료봉사단이 라오스 파쌍마을까지 가는 여정은 쉽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라오스까지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 베트남을 경유해야만 한다. 장장 9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도착하면 다시 차량으로 5시간가량 이동해야만 했다.

라오스는 1975년 공산화된 뒤, 한국과는 외교관계가 끊어져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

봉사단은 무려 14시간을 이동한 끝에 라오스 파쌍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동시간에만 하루를 다 써버린 봉사단들은 마을 주민이 마련해준 숙소에서 짐을 풀고, 잠시 눈을 붙은 뒤 곧바로 진료준비에 나섰다. 진료는 파쌍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보건소에서 진행됐다. 의료봉사단은 새벽부터 과목별로 진료실 설치에 나섰다.

봉사단 중 최초로 파쌍마을 방문해 도착하자마자 숨돌릴 틈 없이 진료

무료진료에 보건소 앞 장사진 이뤄 24시간 동안 버스 갈아타고 방문

새벽 5시 30분. 진료 준비에 한창이던 의료봉사팀이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의사선생님 좀 빨리 모셔주세요. 여기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진료가 시작되기도 훨씬 이른 시간. 환자 한명이 급하게 보건소를 찾았다. 밤새 진통을 앓았던 산모 한명이 의료봉사팀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보건소를 찾은 것이다. 의료봉사팀은 갑자기 들어닥친 환자에 어쩔 줄 몰라했다. 진료 준비는 아직 한창이었고, 아이는 금방이라도 나올 태세였다.

더구나 이번 의료봉사팀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급한 대로 외과 의료진이 산모의 상태를 살폈다. 그렇게 십여 분이 지났을까, 보건소에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를 직접 받은 이영택 광혜병원 의무원장은 “아이의 목에 탯줄이 감겨 있어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다행히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해 안심이다”라고 말했다. 이날은 특이하게도 여자아이 출산에 이어, 1시간 가량 뒤 또 다른 산모가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반갑다연우아 장성원 행정팀장은 “진료

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연이어 태어났다. 봉사단원들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굉장히 당혹스러웠다. 그래도 봉사단의 파쌍마을 방문을 새생명 탄생으로 기쁘게 맞아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오전 8시. 본격적으로 의료팀의 진료가 시작됐다. 보건소에 비치된 대기소에서는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진료는 파쌍마을을 중심으로 주변 인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무료진료를 한다는 소문이 다른 마을로 퍼지면서 보건소 앞은 그야말로 장사진을 이뤘다. 라오스에는 주요 도시를 제외하고 주민들이 쉽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거의 없다.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로 몇 시간이나 떨어진 시내까지 나가야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라오스의 시골 주민들은 굳이 돈을 들여 자신의 아픈 몸을 고치려 하지 않는 인식이 강하다.

꾸와(80)씨는 7년째 오른쪽 눈 아래에 과사를 앓아왔다. 눈 아래에는 주먹만 한 고름과 상처들이 엉켜 딱딱하게 굳어있었으며, 심지어 점막 아래에는 살이 파여 눈물과 피가 하얗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영택 원장이 “왜 지경이 될 때까지 병원에 가지 않았냐”고 묻자, 꾸와는 “돈이 없어서 못갔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아마 피부암일 가능성이 높다. 피부암은 다른 암과는 달리 서서히 병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꾸와의 상태로 보아 탈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영택 원장이 꾸와의 심각한 상태를 보

호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통역 봉사를 담당하는 현지 학생을 찾았다. “꾸와의 상태가 심각하다. 암이다”라고 말하자 통역을 담당할 학생이 ‘암’이라는 말을 모르겠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OECD국가 중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한국과는 달리, 이곳 사람들에게 ‘암’이라는 단어는 ‘생소함’ 그 자체이다. 라오스에선 암이 흔한 질병도 아닐뿐더러, 대체적으로 자신이 암인지도 모르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꾸와의 치료는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끝이 났다.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피가 흐르는 부분을 지혈한 다음, 연고를 발라주는 것이 전부였다.

꾸와처럼 의료 봉사팀이 손을 쓸 수 없는 환자들의 발길은 계속됐다. 각막이 손상돼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는 아이에서부터 선천적 장애를 타고나 턱이 없는 아이, 뇌척수액이 흘러나오는 머리,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아이까지. 이들은 자신의 병이 나올 수 없다는 증세인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의료 봉사팀을 찾아 온 것이다.

이영택 원장은 “상태가 심각한 환자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당장 해결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곳을 찾았을 텐데, ‘역시나’라는 결과를 듣고 가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의사로서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된 환자들 이 있는 반면, 운이 좋게도 병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의료진을 찾은 이들도 있었다.

허에 흑이 생겨 진료소를 찾은 성희(36)씨는 검진을 받은 후 곧바로 흑을 제거하는 수술에 들어갔다. 수술은 수술실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치료 진료실에서 급작스럽게 진행됐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이영택 원장은 “이런 수술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다. 흑이 왜 생겼는지는 조직검사를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앞으로 생활하는 데는 훨씬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들은 대체로 가족단위 방문이 많았다. 이들 중에는 특별한 증세가 발견되지 않는 이들도 많다. 가족 모두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가족 모두 진료소를 찾는 것이다.

실제로 진료소를 방문하는 환자들 대부분은 영양결핍 피부질환 감기 근육통 소화 불량 등 단순질환을 호소하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영택 원장은 “그동안 해외 의료봉사를 많이 다녀봤지만, 라오스의 경우는 대체로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하루에 3~4건 정도의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단순 질환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내과 담당을 맡은 류재환 전국병원불자연합회 회장(경희대의료원 교수)은 “라오스는 열대몬순기후로 11월은 건기에 속해 날씨가 매우 건조하다. 흙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질환을 비롯해 감기 증상을 앓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가장 걱정인 것은 급성질환이다. 심근경색, 뇌졸중 등이 발생하면 이

붓다 자비 봉사단 모집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봉사단에서는

살아 숨쉬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숨결따라 12인연과 사무량심을 실천하고자

30 여년 국내외에서 헌신과 봉사로 포교 일선에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희 불제자들은 평등한 마음으로 인간 방생, 중생 구제라는 사명으로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들이 즐거워 하는 것을 보며 저희들도 흐뭇한 마음으로 보람을 느끼곤 했습니다. 힘들고 고��스러워 하는 후진국 극빈자들을 위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마음과 행을 나눌 마음이 따뜻한 불자, 헌신과 봉사를 아는 불자들을 모집합니다. 모든 불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총재 : 목탁 혜은 봉사단장 : 보덕화 김천대
붓다 자비 봉사단
02)733-5665. 010-3618-6061



곳 주민들은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해 즉사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간호팀 문명옥 씨는 "대부분이 예방관리만 철저했어도 발병되지 않는 질병들이다. 라오스 주민들은 아직까지 위생 개념이 전혀 없다.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감기는 약 처방만 받아도 금방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봉사 이틀째에는 전날 진료소를 찾았던 이들이 다시 진료소를 방문해, 진료 시작 1시간 만에 500여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이영택 원장은 "이들은 조금이라도 약을 더 비축하기 위해 이틀씩 연이어 이곳을 찾는 것"이라며 "진료를 해주고 약을 처방해 줘도, 아마 집에 돌아가면 약을 먹지 않고 쌓아둘 것이다. 보관하고 있다가 자신이 죽을 만큼 아프다고 느낄 때 하나씩 먹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라오스 이라고 불리는 산간지역 원주민들은 진료소를 방문해 "힘들게 이곳에 왔으니 약을 더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한방팀 간호보조를 맡은 이영애 씨는 "한방약은 다른 의약품에 비해 비교적 적게 챙겨와 야겨 싸야만 했다. 먼 길을 왔으니 약을 더 달라는 환자들에게 넉넉히 약을 챙겨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환자들 중에는 진료를 받기 위해 먼 길을 마다않고 온 사람들이 상당수였다. 3~4시간을 걸어 보건소를 찾아가 하면, 진료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받기 위해 새벽 3시부터 진료소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다. 심지어 24시간 동안 버스를 갈아타고 진료소를 방문하는 이들도 있었다.

3시간을 걸어 진료소를 찾아왔다는 우안(55)은 "평소에 어깨가 아프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진료소를 찾았다"며 "오는데 힘들었지만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의료봉사로 나누는 불법(佛法)

이번 해외의료봉사팀은 의료진 14명, 일반봉사자 16명을 비롯해 현지 봉사단 10여 명 등 총 40여 명의 봉사자가 참가했다.

의료팀은 내과 전문의 1명 외과 전문의 1명 한방전문의 3명 치과전문의 1명 약사 2명 간호사 6명으로 구성됐다. 진료는 대체적으로 내·외과가 가장 많았으며 한방과 치과에도 많은 환자들이 몰렸다. 내·외과와 달리 한방과와 치과는 조금 더 특수한 진료와 관련된 환자들을 진료하는 편이었다.

현지 통역을 담당했던 보리영어학교 교장 혜현 스님은 "현지 주민들이 한방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없어, 한방치료를 대한 거부반응이 있을까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생각보다 한방과에 대한 환자들의 호응이 좋아 다행이다"고 말했다.

한방팀 한창호 동국대 경주병원 한방내과 교수는 "주로 침 치료에 많이 이뤄졌는데, 생각보다 치료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가 좋았다. 간혹 침을 맞는 것이 무섭다고 말하는 환자들도 있었지만 10명에 1명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치과진료를 맡은 김진섭 전국병원봉사연합회 고문(김화치과 원장)은 "라오스 주민들의 치아 상태로 보아 대부분 신경치료를

의약품 지급해도 복용 미루고 보관 치료 후 봉사단에게 합장으로 답례

봉사시간 2200건 이상의 진료 실시 벽화 그리기 등 환경 미화 활동 병행

가 같이 이뤄져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신경치료를 할 수 없어, 이틀씩 연이어 진료소를 방문한 환자들도 많았다"며 "심각한 경우에는 발치가 이뤄졌는데, 태어나서 이렇게 발치를 많이 한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의료봉사팀은 1200여 명의 환자가 방문해 2200건 이상의 진료를 진행했다.

황재운 반갑다연우야 봉사단장은 "라오스 해외의료봉사를 진행할 때 시간을 내주실 수 있는 의사선생님들이 많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이 컸다. 다행히 마음을 내어 봉사활동에 참여해 준 의료진 덕분에 봉사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황 단장은 "이번 봉사활동에는 불교계 소속이 아닌 분들도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국립목포병원에서 간호사로 활동 중인 김혜정 씨는 "평소 해외봉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터에, 우연히 반갑다연우야 봉사단 모집공고를 발견하고 이번 봉사에 참여하게 됐다"며 "날씨도 덥고 몸도 많이 피곤하지만, 현지 주민들을 만나 직접 봉사

활동을 해보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앞으로도 이런 봉사활동에 자주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황재운 단장은 "반갑다연우야는 2009년 몽골에 이어 2010년에는 인도를 방문해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불교계에서는 이런 해외봉사활동에 너무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며 "앞으로 불교계 단체와 불자들이 해외의료봉사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이영택 원장은 "수술만 잘 되면 건강해질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 있다. 앞으로 한국에서 지원을 통해 지속적 치료가 가능하면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 봉사단은 의료봉사 외에도 파쌍마을에 위치한 파쌍학교에 페인트 칠하기, 벽화 그리기 등을 진행했다. 벽화 그리기를 담당했던 봉사단원 이송 씨는 "원래 대학에서 불교미술학을 전공했지만, 벽화를 그리는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라오스 해외봉사를 와서 벽화를 그리니 보람되고 기분이 좋다"며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그림을 보고 좋아해 주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봉사단 지도 범사를 맡은 좋은절 주지 명궁 스님은 "해외의료봉사는 처음으로 참가했는데, 막상 와보니 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몸은 고되지만 정신이 몸은 이기게 하는 힘이 생긴다. 더 많은 것을 못해주고 이곳을 떠나는 것 같아 아쉽지만,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생기면 꼭 참가할 생각이 다"고 밝혔다.



파쌍마을 의료봉사의 숨은 일꾼들입니다

라오스 보리영어학교 교사·학생 통역 등 자원봉사 적극 참여해

3일간의 라오스 해외 의료봉사는 라오스 보리영어학교 교장 혜현 스님과 교사 및 학생들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혜현 스님은 8년 전부터 라오스와 인연을 맺고 락하식송 마을에 보리영어학교와 청허영어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스님이 운영하는 두 학교는 정부의 인가를 받은 방과 후 학교로, 아이들이 학교수업을 마친 후 오후 5~7시부터 수업을 진행한다. 현재 학교에서는 약 400여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무료로 학교를 다닌다.

혜현 스님은 한국에 머물던 시절, 모아뒀던 돈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현재는 몇몇 사람의 후원을 받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스님이 운영하는 학교들은 라오스에서 가장 수준 높은 교육을 하는 것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모집기간에는 학생들이 너무 몰려, 성적순으로 모집할 정도다.

혜현 스님은 한국과 라오스를 오가며 학교를 운영해 오다 3년 전부터 라오스에 머물며 이곳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반갑다연우야의 이번 해외의료봉사는 혜현 스님과 인연으로 시작됐다. 혜현 스님은 "보리영어학교를 졸업한 '미'라는 여학생이 있다. 학교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시골에서 올라와 친척집에 머물며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따가 사는 마을을 방문해 보니 의료혜택이 거의 없는 동네였다. 그래서 반갑다연우야를 통해 이번 봉사활동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혜현 스님은 "이들은 다만 자신에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시골에서 올라와 친척집에 머물며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따가 사는 마을을 방문해 보니 의료혜택이 거의 없는 동네였다. 그래서 반갑다연우야를 통해 이번 봉사활동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를 위해, 보리영어학교 교사와 졸업생 10여 명이 통역 봉사원으로 봉사활동에 참여시켰다. 학생들은 1명씩 의사들과 짝을 이뤄 환자의 진료를 진행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영어로 환자에게 질문을 하면, 현지어로 환자와 통역을 한 다음 다시 영어로 전달해 주는 역할이었다.

학생들은 환자들에게 질문해야 할 의학적 지식과 증상들에 대한 질문지를 작성해 공부해 하는 등 봉사활동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첫날은 의료진들과의 소통에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둘째 날이 되자 자신들이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환자들의 상태를 살펴가며 의료진들에게 설명해주기도 했다.

보리영어학교 졸업생인 우이(17)는 "피곤하긴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 한국 봉사단원들과 함께 이렇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또 다시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혜현 스님은 "이곳 라오스에 와서 라오스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지내다 보니 라오스인들이 굉장히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님은 한국 사람들이 라오스인들을 불쌍한 사람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파쌍마을 주민들이 돈이 없고 가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혜현 스님은 "이들은 다만 자신에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시골에서 올라와 친척집에 머물며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따가 사는 마을을 방문해 보니 의료혜택이 거의 없는 동네였다. 그래서 반갑다연우야를 통해 이번 봉사활동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라오스=이은정 기자

찬덕불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연등 자동 승강장치 -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 흥은사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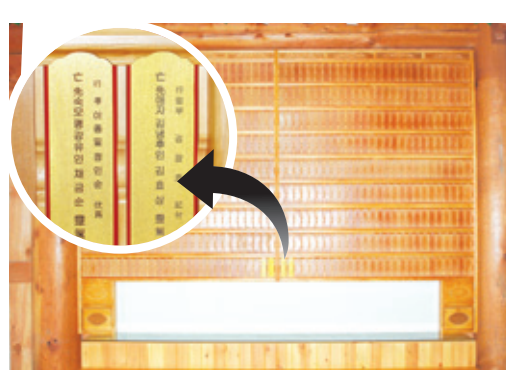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아름다운등



팔각점등명가등



만월명가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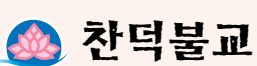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h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영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뭇으로 퍼져 화려한 빛가득 특징 ● 시설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